

프랑스어 연음과 음절의 역할

French Liaison and The role of syllable

김 명 관*

(Kim Myung Gwan)

ABSTRACT

In this article are proposed a theory of the French syllable and a rule of French liaison within the dependency phonology framework. The treatment offered assumes that the notion of 'floating' or 'extrametrical' segment allows for a better description than competing alternatives based on truncation or insertion. This rule was based on the consequences of positing floating segments for the structure of lexical entries and underlying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I have described the phenomenon of French liaison and shown that insights normally associated with metrical and 'autosegmental' accounts could naturally be integrated within the syllable structure.

Keywords: floating, extrametrical, truncation, dependency, autosegmental

1. 머리말

음절은 주어진 특정 언어의 운율 현상을 묘사하는데 유용한 언어 단위이다. 물론 음절의 개념은 전통 구조언어학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이한 층위들이 지각의 층위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작게는 음소(phonème)의 층위에서 형태소(morphème), 단어(mot), 통합체(syntagma) 등의 층위를 거쳐, 크게는 문장(phrase)의 층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어 습득에 관한 최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근 연구에서는 이 음절 단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¹⁾

이런 음운론 연구의 경향은 음운규칙 중심의 음운론으로부터 음운원리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통사론의 지배와 결속이론의 방향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표준이론에서 제시되었던 수많은 규칙들이 대부분 없어지는 대신에 원칙 또는 원리에 의한 설명이 시도되는 것처럼, 음운론에서도 종래에 제시되었던 많은 음운규칙들이 보다 보편적인 음운원리에 의해 흡수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을 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의존음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음절이론이 붙어 음운변화 현상, 특히 연음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몇몇 분석 자료들을 비교 검토해보려고 한다.

2. 음운 변화 현상으로서 연음

모든 언어는 일차적으로 말로 된 구어이다. 음성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각 언술은 청각 체계에 의해 포착되고 인지되는 음성적, 음향적 실체로 구성된다. 이 실체에 의미적 가치, 즉 특정 의미가 부과된다. Saussure(1916)는 이렇게 특정 시니피앙(signifiant)을 시니피에(signifié)에 결부시키는 언어학적 형태를 기호(sign)라고 불렀다. 최소 의미 단위, 즉 최소 언어 기호는 형태소이고, 프랑스어에서 이 형태소는 종종 단어와 상응관계를 갖는다. 형태소들의 한정되지 않은 총체는 특정 언어의 어휘를 구성한다. 그리고 어른 화자는 어려움 없이 수 천 개의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어휘의 수를 증대시키고 그 용법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단위들 모두가 의미 있는 음성 형태들은 아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고 각각 수많은 상이한 발성동작에 의해 만들어지고, 더 이상 나누어 질 수 없는 덩어리들처럼 인지되고 습득된다. 그들 자체는 소수의 의미 없는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어진 언어에서 이들 단위들은 수만 개의 형태소들을 만들기 위해 그들 간에 서로 결합하고 끊임없이 다시 사용된다. 이들 결합관계들 중,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어 연음현상에서 나타나는 음운변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프랑스어의 연음현상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라루스 사전(Grand Larousse: 3027-3028)에 제시된 연음현상에 대한 설명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 1) 심리언어학자들은 음운론적 단위들이 최소의 단위들로 자리 매겨질 때, 음절들을 지각의 최소단위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율적 변화를 지니면서 의미 단위들을 만들기 위해 음절들이 상호 유기적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또 이들은 개체발생의 관점에서, 외부 세계와 상호연관성을 갖고 의사소통하기 위해 인간에게 최소한 허용되는 특정 체계가 태어나면서부터 음절에 의해 점진적으로 자리 매겨진다고 간주한다.

[1] 연음현상에 대한 설명

불어의 많은 단어들은 그 뒤에 휴지가 나타날 때 철자상 발음되지 않는 자음들로 끝난다. ces, petit, quand. 이 자음들은 자음이나 유음 h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서는 역시 발음되지 않는다. ces hiboux, ce petit garçon, quand vous voudrez. 그러나 이들 자음들은 모음이나 무음 h 앞에서는 발음될 수 있다. ces-z-animaux, un petit-t-homme, quand-t-il vaudra. 이 때 이들 자음들이 뒤에 오는 모음에 연결되었다고 한다. 연결되는 발음은 늘 그들의 철자와 상응하지는 않는다.

-s, x, z 는 [z]로 발음된다. les hommes [lezɔm], deux hommes [døzo m] allez-y [alezi]

-t, d는 [t]로 발음된다. petit homme [pøtitɔm], grand homme [grɑtɔm]

-g는 [k]로 또는 발음되지 않는다. sang impur [sɑ̃kɛpyr], suer sang et eau [sɥe sɑ̃keo] un long entretien [lɔ̃(g)ɑ̃trətjɛ]

-f는 [v]로 발음된다. 그러나 [f]로 발음될 때도 있다. dans neuf ans [nœvɑ̃], neuf heures [nœvɛr], neuf employés [nœfɑ̃plwajɛ], les neuf autres [lenœfotr]

-p는 trop와 beaucoup에서 [p]로, -n은 [n]으로, -r는 [r]로 각각 발음된다. trop aimé [tʀɔpɛme], beaucoup aimé [bokupeme], un ami [ɑ̃nami], bien habillé [bjɛnabijɛ], dernier acte [dernjerakt]

이런 연음현상은 크게 화자가 연음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와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ncrevé(1983:48)는 발화 상에서 나타나는 연음현상을 도식 [2]에서와 같이 <일정한 것>, <가변적인 것>, <연음 실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식 [2]에 나타나 있듯이 프랑스어 연음현상은 음성학적인 기준 이외에 문맥 즉, 통사적, 의미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발화 상황에서 연음의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연음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서 발화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시적으로 비교해 보자.

발화 체들은 음향적인 변수들로 가시화될 수 있다. 주로 <실제 시간상에서> 이들을 정확히 측정해주는 도구들 즉, 오시로스코프(oscilloscope), 오시로그람(oscillogramme), 쏘나그램(sonagramme), 스펙트로그래프(spectrograph), 강세측정기(intensimètre), 선율 분석기(analyseur de mélodie) 등과 같이 전통적인 측정도구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형시켜 가시화 하였다. 다음 도식 [3]과 [4]에 제시된 예들은 연음이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가시화한 것으로 Encrevé(1983:44)가 제시한 예들을 재인용한 것이다.

[2] 연음현상의 분류

	일정한 것	가변적인 것	연음 실수
명 사	명 사 한정사 + 대명사 형용사 <i>vos enfants</i> <i>deux autres</i> <i>un ancien ami</i>	복수 명사 <i>des soldats anglais</i> <i>ses plans ont</i> <i>réussi</i>	단수명사 + <i>un soldat anglais</i> <i>son plan a réussi</i>
동 사	인칭대명사 + 동사 <i>Ils ont compris</i> <i>Nous en avons</i> 동사 + 인칭대명사 <i>ont-ils compris</i> <i>allons-y</i>	동사 + <i>je vais essayer</i> <i>j'avais entendu</i> <i>dire</i> <i>vous êtes initié</i> <i>il commençait à</i> <i>lire</i>	et + <i>et on l'a fait</i>
불 변 사		단음절 불변사 + <i>en une journée</i> <i>très intéressant</i> 다음절 불변사 + <i>pendant un jour</i> <i>toujours utile</i>	유음 h <i>des héros</i> <i>en haut</i> + un, huit, onze et dérivés <i>la cent huitième</i> <i>en ooze fours</i>
특수한 것	관용적인 형태 <i>comment allez-vous</i> <i>les Stats-Univ</i> <i>accent ainu</i> <i>tout à coup</i> <i>de temps en temp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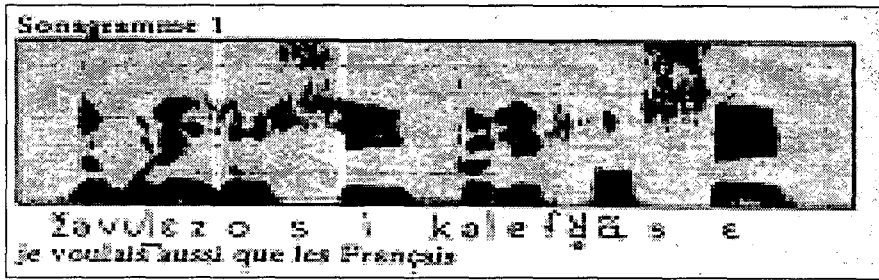
흔적도식은 예문 [3]과 [4]의 음성발화를 <광역여과기>를 사용하여 가시화한 것이다. 분절화는 분광의 도움을 받아 발화신호로 이루어진다. 음향적인 사건들의 변이들에 관심이 있어 물리적인 관점을 취하든, 음성들, 음절들, 음절의 그룹들, 단어들, 통합체들 등을 찾아내는 언어학적인 관점을 취하든, 우리는 분절음들의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다. 상이한 층위에서 분절음의 '절단'과 '분류표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운율적 모형을 특정 표상으로 나타낸다.

쏘나그램 [3]과 [4]에는 두 언술에서 일어나는 음절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쏘나그램 [4]에는 자음 [z]와 뒤이어 오는 모음 [ɛ] 사이에 분명하게 불연속성이 나타난다. 2/10 초이상의 공백이 보인다. 이런 공백은 성문폐쇄 [2]에 상응한다. 오실로그래프 [4]에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3]에서는 자음 [z]의 제음절화가 나타나고 [4]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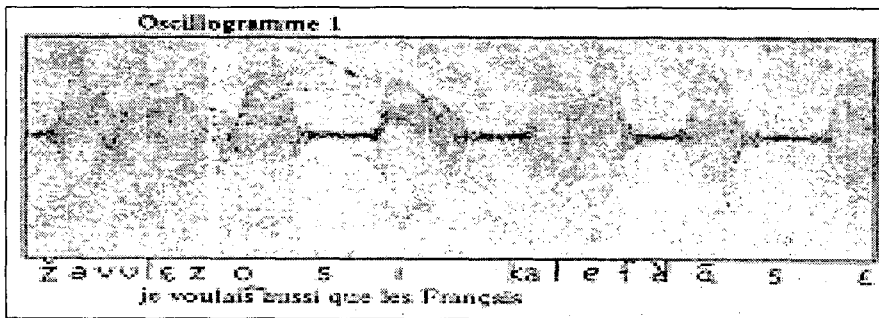
[3] je voulais ~ aussi que les Français

[ʒ ə v u l ɛ z o s i k ə l e f R ɑ̃ s ɛ]

a. Sonagram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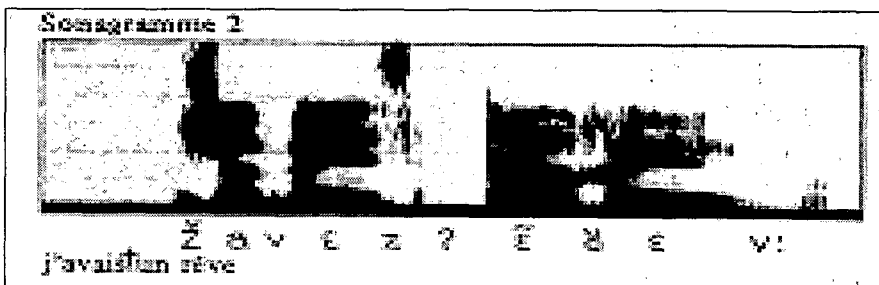
b. Oscillogram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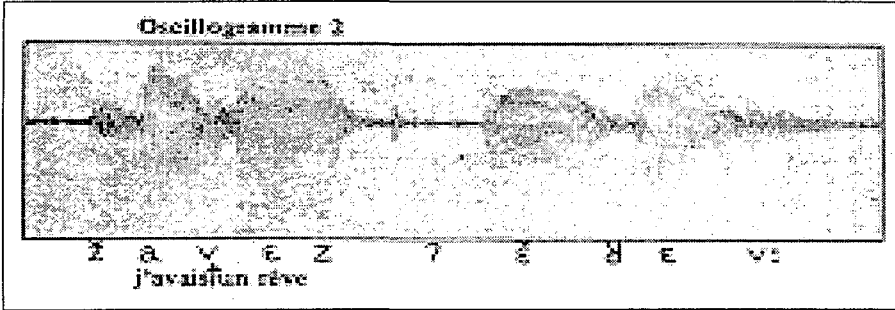
[4] j'avais φ un rêve.

[ʒ a v ɛ z ? ɛ̃ r ɛ v]

a. Sonagramme



b. Oscillogramme



특히 다음 [5]의 경우는 연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프랑스어에서 연음을 단순히 음성학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 [5] a. un savant-t aveugle (un aveugle qui est savant 박사한 맹인)
- b. un savant / aveugle (un savant qui est aveugle 맹인 학자)

이렇듯 프랑스어의 연음현상은 음성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규칙화할 수는 없다. 즉 연음현상은 음성학과 음운론의 층위를 벗어나 통사론 또는 의미론적인 층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 음성자료체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연음현상에 대한 음운론적, 통사론적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3. 연음현상의 음운론적인 해결

프랑스어 연음에서 나타나는 자음의 출현과 탈락에 대해 많은 언어학자들이 나름대로 규칙들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Chomsky & Halle(1968)는 프랑스어 연음현상을 [+syllabic] 자질을 사용해 설명하였으며, Schane(1968)과 Dell(1970)은 기저형에서 표층형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음이 탈락하는 규칙으로 설명하였다.

- [6] Chomsky & Halle의 자음 탈락규칙

$$\left[\begin{array}{c} -\text{asyl} \\ \alpha\text{cons} \end{array} \right] \text{---->} \phi / \text{---} \# \left[\begin{array}{c} -\text{asyl} \\ +\text{foreign} \end{array} \right]$$

[7] 적용된 예들

Consonants(자음)	Liquids(유음)	Vowels(모음)	Glides(활음)
<i>petit garçon</i>	<i>petit livre</i>	<i>petit enfant</i>	<i>petit oiseau</i>
<i>cher garçon</i>	<i>cher livre</i>	<i>cher enfant</i>	<i>cher oiseau</i>
<i>le garçon</i>	<i>le livre</i>	<i>lé enfant</i>	<i>lé oiseau</i>
<i>pareil gâchis</i>	<i>pareil livre</i>	<i>vieil ami</i>	<i>vieil oiseau</i>

[8] Schane의 자음 탈락규칙

$$C \rightarrow \emptyset / _ \left\{ \begin{array}{c} + \\ \# \end{array} \right\} C$$

[9] 적용된 예들

기저형태	# petit + z # garsõ #	# pøtit + z # ami #
자음탈락	# pøtit # garsõ #	# pøti + z # ami #
도출형태	pøti garsõ	pøtiz ami

[10] Dell의 자음 탈락규칙

$$C \rightarrow \emptyset / _ \# \$$$

[11] 적용된 예들

<i>petit ami</i>	#\$ # pøS ti\$ t# a \$ mi \$ #
<i>il est petit</i>	#\$ # il # \$et # pø\$ tit # \$ #

한편 Kiparsky(1982)는 이들과는 달리 음운론적 구성성분과는 관계없는 <어휘 층위>를 제시했다. 이 어휘 층위 내에서 어휘 단위들이 특정 규칙의 적용과 관련되어 <특수화>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gros>와 같은 단어의 표상은 구조음운론에서처럼 /gRo/가 아니라 |gRos|가 된다. [gRo]라는 발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리 끝자음이 탈락되는 것과 그 자음에 여성형으로, 또는 파생에 의해, 또는 다음과 같이 연음을 설명해주는 단어의 모음이 뒤이어 나타나는 경우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²⁾

[12] |gRos+ə|, |gRos +ɛs| 또는 |gRos + aniaml|

2) |gRos+(ə) + afɛR|에서처럼 여성에서 나온 |ə|의 탈락이 일어난 다음에, |s|가 그 모음과 접촉할 때는 적용되지 않던 [z]의 유성화를 다른 규칙이 설명해 주고 있다.

[12]의 예들은 생성음운론적인 접근방법이 사실 어떻게 <형태-음운론적>이 되는지 잘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짧은 |grol|와 긴 |gros|와 같은 이형태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들 이형태들에 근거하여 모든 파생이 나타난다. 추상적인 어휘 단위들에 적용되는 음운론적인 규칙들은 이들 형태의 표면적인 교체를 고려한 것이다.

생성 음운이론은 일반적으로 생성문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표상의 자료체들에 의존하지 않고 선택된 몇몇 예들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어 내는 단점을 간파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생성음운론에 의해 제시되는 형식주의 이론이 너무 무겁고 구속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³⁾ 생성음운론에 가해지는 비평들이야 어떻든 간에, 음운론적 분석, 다시 말해서 모든 언어학적 분석 층위들과 연관된 비의미 단위들의 연구를 고조시켰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어떻든 <평면적인> 분석이 문제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사용했던 <초분절>과 <분절>이라는 용어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유형이 같다. 특히 음절적 구조들의 역할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던 전통적인 생성음운이론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이들 이론과는 다른 음운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다.⁴⁾

Goldsmith(1976)에 의해 제안된 초분절음운론에 따르면 음운론적 표상들은 전통적인 구조음운론이나 생성음운론에서처럼 음성들이나 음소들에 상응하는 분절음들의 일차원적인 축에 따르는 특정 연쇄로 구성되지 않고, 음운론적 분석에서, 다시 말해서 비의미적인 단위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단위들의 연쇄로 구성된다. 여기서 단위들은 시간상의 단위들의 연쇄로 구성되어 발화의 시간 축에서 자립적인 <제 3의 요소들>에 열지어 있다. <골격점들>은 시간 축에서 지속성을 지닌다. 자립적인 특성을 지닌 음절들은 근본적으로 어두자음(Attaque)과 각운(Rime)(이것은 다시 핵과 어말자음으로 나뉘어 진다)를 구성하는 고유한 구조에 따라 골격점들(points squelettiques)을 재결합하면서 만들어진다. 분절음들 즉 모음들과 자음들은 자립적인 다른 축에서 나뉘어 진다. 모음들은 핵(Noyau)에 상응하고 자음들은 어두자음이나 어말자음(Coda)을 구성할 수 있다. 다른 선은 성조 영역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선율적이고 강세가 오는 영역에 해당한다. 결국 다른 선들은 특정 음성적 자질과 연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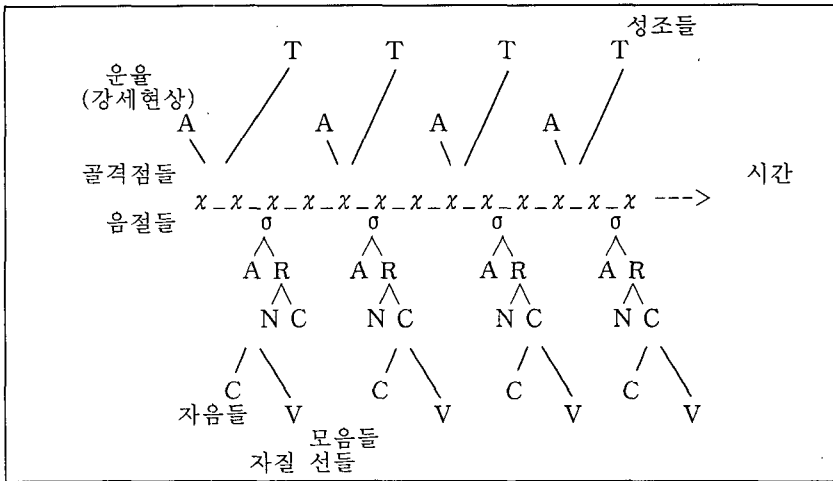
이들 선들간의 연합은 합리적인 생성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들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규칙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Encrevé(1983)가 프랑스어의 연음현상에 합리적인 설명을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음절적이며 비선형적인 틀에서이다. 프랑스어에서 하나의 음절은 0에서 3개까지의 자음 수를 지닌 <CVC> 유형의 시간적 연쇄로 구성되어 있다. 발음되지 않던 끝 자

3) O. Ducrot et J.-M. Schaeffer (1995:32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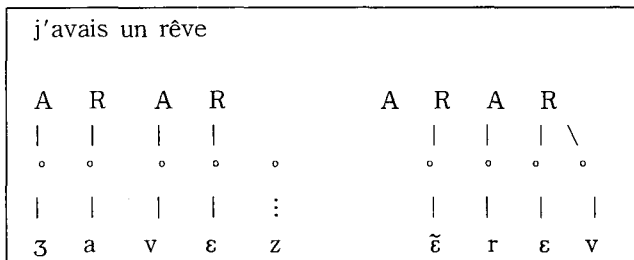
4) 초기의 생성 언어 이론, 즉 Comsky & Halle의 「영어의 음성유형」에서는 음절을 언어 단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음은 모음이 뒤따라 올 때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즉 CV(C)-V(...)가 CV-CV(...)로 재음절화된다. 이때 <떠있는>자음이 필연적으로 연음될 때 <소리연결>을 보장해 주기 위해 뒤에 오는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말한다. Encrevé는 <분절적 해석과 골격을 갖는 음절적 해석은 분리된 두 가지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립분절음’, 즉 떠있는 음절적 구성성분들은 분절적으로 해석되는 골격위치들에서만 확고해질 수 있다는 보편 규약과 떠있는 끝자음은 발화연쇄에서 뒤따르는 단어가 ‘제로 어두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골격 안에서 확고해질 수 있는 프랑스어에만 고유한 조건>을 제안했다.

[13] 음절들의 결합 모형



[14] 떠있는 자음 처리



이런 고찰은 역시 자질들과 분절음들의 성질과 표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새로운 생각들은 현대 음성학의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상호-조음>과 <조음동작의 역동성>의 영역에서 인지의 과정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이론은 분절음들 간의 연관관계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통사이론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Kaye, Lowenstamm & Vergnaud(1985)의 매력과 지배 이론(théorie du charme et du gouvernement)은 음운론적 절차의 분석을 위해 기본단위로 음절을 고려하고, 특정 요소들이 상이한 음운론적인 현상들의 <지배>의 <시동장치>가 되는 분절음들의 계층화된 내적 구조를 제안하는 다원적 음운이론들 중의 하나이다.

이들 학자들에 따르면 <차거운 모음>을 제외하고 <따뜻한 자질>로 표기되는 자음적 분절음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본 모음요소 여섯 개와 다른 5개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들 요소들 각각은 발음될 수 있다. 이들 음운론적인 절차들은 분절음들을 만들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요소들이 결합하여 또는 그들의 구성 성분들인 분절음들로 나뉘어질 때만 영향력을 갖는 자질들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음운론적인 과정들은 요소들의 연합과 분리에 의해 전개된다.>⁵⁾

각 분절음의 실현은 일종의 <융해 작용(opération de fusion)>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다시말해서 상이한 이들 요소들의 결합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들 요소들 중 어떤 것들은 머리(tête)로 사용되고 다른 것은 조작자들(opérateurs)로 쓰인다.⁶⁾

7개의 모음에 중립모음이 더해지는 프랑스어에서 모음과 자음은 [15], [16]과 같이 표시된다.

5) 이들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I⁰: [-뒷쪽의]
2. U⁰: [+원순의]
3. v⁰: <따뜻한 자질로 표시되지 않는 차거운 모음>
4. A⁺: [-높음]
5. I⁺: [+ATR설근 앞쪽의]
6. N⁺: [+비음의]
7. R⁰: [+설단의]
8. ?⁰: [+협착의]
9. F⁰: [+지속성]
10. L⁻: [+부드러운 성대]
11. H⁻: [+딱딱한 성대]

이들 요소들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중립>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긍정적 매력이 있는 요소들(+부호)은 <위쪽-성문>의 세 장소, 즉 A⁺<구강>, I⁺<인두강>, N⁺<비강>의 극대화를 나타낸다.

부정적 매력을 타나내는 <->은 특정 요소들을 구별하는데 쓰이며, 느슨함(L⁻)과 강함(H⁻)을 특징짓고 성조언어들에 있어서는 낮은 성조와 높은 성조를 특징짓는다.

다른 요소들은 매력이 없거나 중립의 매력 <⁰>이다.

한 음절 내에서 어두자음은 부정적 또는 중립적 매력을 지닐 수 있고, 핵은 늘 긍정적인 매력만을(그 분절음이 차가운 모음의 요소에 의해 표시될 때를 제외하고, 그때는 <중립의 매력>이 있다) 지닌다.

6) 매력과 지배 이론의 규약에 따라 머리에는 밑줄이 쳐진다.

[15] 매력 이론에 따른 프랑스어 모음 분류

(골격점들)	X	X	X	X	X	X	X	X
머리	I ⁰	I ⁰	I ⁰	U ⁰	U ⁰	U ⁰	v ⁰	v ⁰
연산자	v ⁰	A ⁺	A ⁺	v ⁰	A ⁺	A ⁺	v ⁰	A ⁺
	I ⁺	I ⁺	I ⁺	I ⁺	I ⁺	I ⁺	I ⁺	I ⁺
	[i]	[e]	[ɛ]	[u]	[o]	[ɔ]	[ə]	[a]

[16] 매력 이론에 따른 프랑스어 자음 분류

a. 유성 자음			b. 비자음과 유음		
X	X	X	X	X	X
? ⁰	R ⁰	v ⁰	? ⁰	R ⁰	v ⁰
U ⁰	? ⁰	? ⁰	U ⁰	? ⁰	R ⁰
L ⁻	L ⁻	L ⁻	N ⁺	N ⁺	N ⁺
	L ⁻		L ⁻	L ⁻	L ⁻
[b]	[d]	[g]	[m]	[n]	[ŋ]
			[r]	[l]	

각각의 음해표현의 머리에는 밑줄이 쳐져있다. 다른 요소들은 조작자들이다. 모음적 분절음들은 차거운 모음으로 음성적 실현이 되는 [ə]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매력을 갖는다. 예를 들면 [i]는 따뜻한 자질들이 [-뒤쪽] (I⁰)과 [+ATR설근앞쪽의] (I⁺)가 되는 요소들의 음해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의 표현 매력을 계산할 수 있다. (i) 같은 매력을 갖는 두 요소들은 중립의 매력이 관련되지 않으면 서로 결합될 수 없다. (ii) a) 표현 매력은 그것의 머리 매력(만일 머리가 A⁺요소이면 그 표현은 긍정적 매력을 갖는다)이 되고, b) 만일 그 머리 매력이 중립적이면 표현 매력이 그 조작자(I⁺, N⁺, H⁻, L⁻)의 매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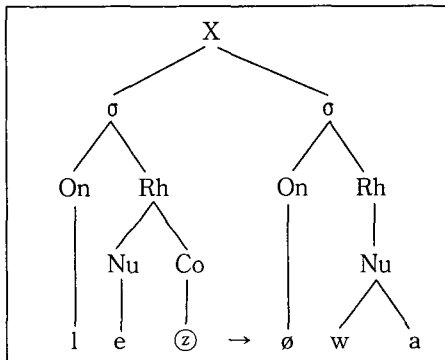
<지배>의 원칙들은 두 <골격>의 위치간의 연합과 대칭관계의 이원성의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분절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배자가 되고 다른 것들은 피지배자가 된다. 그래서 이들은 그 힘에 따라서 A(attaque)와 N(noyau)의 위치들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음운론에는 지배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단어는 음절들의

연쇄라기보다는 차라리 <음절들의 계층적 조직체>라고 간주해야 한다.⁷⁾

Durand(1990:205)은 연음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절음의 의존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Durand에 따르면, 연음이 일어나는 les oies [lezwa]에서 밀줄친 [wa]는 음절 구조에서 상승이중모음으로서 각운(Rime)의 관할 하에 음절핵을 형성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프랑스어의 연음현상은 앞 음절의 분절음 Co(coda)가 뒤 음절음의 비어 있는 On(onset)자리로 이동해 가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가설로 자질들이 대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것은, 주로 현재 음운론적 연구의 핵심이 되는 것, 즉 음절의 개념과 그 역할 그리고 언어의 의미 단위들의 층위에서 전개되는 역동적인 절차들을 잘 알기 위해서 보다 나은 표상을 이용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이제 이런 시도들에서 제시되는 음절 수형도 내에서 어떻게 프랑스어 연음현상이 설명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7] 분절음의 의존관계 변화



4. 재음절화와 연음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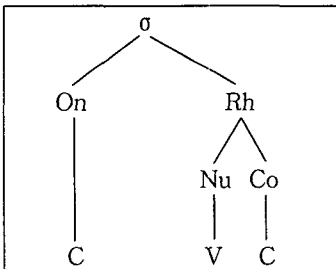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어의 연음현상은 음운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 7) 지배관계는 음절적 구조의 층위에서 뿐만 아니라 음절을 넘어서는 문맥들에서도 역시 지켜진다. 프랑스어에서 <patrie>와 <Pat rit>의 형태들을 구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배의 층위이다. 지배 이론은 음절적 구조의 근본적인 신비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프랑스어에서 <sac>이 <r e>와 같이 잘 만들어지 한 음절이라면, 왜 <sac-r e>는 프랑스어에서 가능한 단어가 아닐까? 그 단어들이 음절들의 단순한 연쇄일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론은 <sa-cr e>가 <s+a+k+r e>로 연쇄된 단어의 내적 음절화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에 <par-ti>와 같은 단어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t/가 /r/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pat-rie>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r/가 매력 없이 때문에 /t/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sa-cr e>처럼 <pa-trie>는 음절화가 가능하다.

다. 이들 현상을 적절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음운통사이론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음절구조와 통사구조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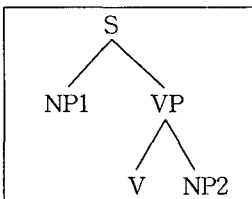
보편적인 음절구조 즉, 우분지적 음절구조를 토대로 해서, 본 논문에서는 음절구조 자체의 특성과 음운론적 의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Noske(1982)가 제시한 프랑스어 기본음절구조를 참고해서 잠정적으로 음절 모형을 제시해 보면 도식 [18]과 같다.

[18] 기본음절구조



보편적인 음절구조로서의 [18]은 그 모양이 우선 통사론에서의 문장 구조와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18]과 유사한 통사구조를 제시해 보면 도식 [19]와 같다.

[19] 기본통사구조



변형생성문법에서 주어진 [19]의 구조에서 S로부터 직접 관할되는 마디 NP1으로 규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18]에서도 음절전부(Onset)을 정의할 때 음절마디(σ)로부터 직접 관할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통사론의 구절구조규칙으로 [19]의 구조를 다시 풀면 도식 [20]과 같다.

[20] 통사론의 다시 쓰기 규칙

- a. S -> NP1 + VP
- b. VP -> V + (NP2)

규칙 [20]에 의하면 통사론에서 S를 구성하는 두 요소, 즉 주어로서의 NP(=NP1)와 VP는 필수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VP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필수요소인 V와 임의요소인 목적어로서의 NP(=NP2)이다. 통사론에서의 이와 같은 구조적 정보를 고려한다면 꼭 같은 구조의 음절구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구조적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사구조에서 주어 NP가 필수요소인 것처럼 음절구조의 On도 필수요소이어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On가 없는 음절이 있을 수 있지만 기저구조에서는 On의 자리에 분절음이 있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18]과 [19]의 구조적 유사성으로부터 통사론의 중요한 개념인 성분통어(c-command)의 개념이 음절구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4.1. 성분통어와 음절구조

Reinhart(1976)에 의하면 성분통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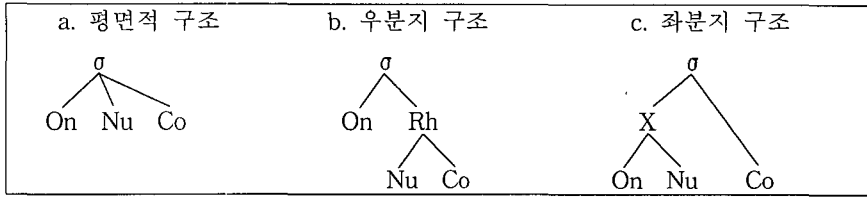
[21] 성분통어 원리

Node A c-commands node B if neither A nor B dominates the other and the first branching node which dominates A also dominates B.

이 정의에 의하면 위의 [19]에서 NP1은 그 첫 번째 분지 마디가 S가 되고, 이 S가 NP2를 관할하므로 NP2를 성분통어로 한다. 이와는 반대로, NP2는 NP1을 성분통어로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NP2의 첫 번째 분지의 끝인 VP가 NP1을 관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8]에 성분통어의 개념을 적용시켜보면 On는 Co를 성분통어하지만, 반대로 Co는 On를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Nu와 관련해서도 On와 Co는 행동을 달리한다. 즉 Nu는 Co를 성분통어하지만 On을 성분통어하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통사구조 [19]에서와 마찬가지로 [18]에서도 On의 자리는 강 위치이며 Co의 자리는 약 위치가 된다는 사실을 음절구조 그 자체의 계층성이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분통어 개념에 입각한 보편적인 음절구조 [18]은 그 구조 자체로써 On가 갖는 음운론적 특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On의 자리는 강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며 Co의 자리는 동화현상이나 자음탈락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이들 관계를 음절구조와 연관시켜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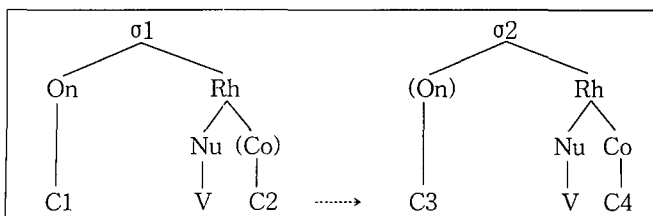
[22] 음절구조의 3가지 유형



성분통어의 개념을 적용시켜 [22]의 (a.)와 (c.)를 비판할 수 있다. 즉, (b.)에서는 On와 Nu와 Co가 꼭 같이 음절마디로부터 직접 관할되는 평면적 구조이기 때문에 On와 Co가 서로를 성분통어하고 있다. Nu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On과 Co는 꼭 같이 Nu와 상호 성분통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같은 삼분지형의 음절구조로는 On과 Co사이의 음운론적 특성사의 차이를 구분시켜줄 수 없다. 또 (c.)에서는 (b.)와는 달리 On가 Co를 성분통어할 수 없고 오히려 Co가 On를 성분통어하고 있다. 그래서 Nu가 성분통어하는 것은 (b.)에서 처럼 Co가 아니라 On가 된다. 따라서 (c.)와 같은 좌분지적 음절구조에서는 Co의 자리가 강 위치가 되고 반대로 On의 자리는 약위치가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c.)의 구조에서는 Co의 자리에서 동화현상이나 자음탈락의 현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만일 프랑스어의 음절구조가 (c.)의 구조라면 프랑스어에서는 자음탈락이나 동화현상이 Co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음절후부의 분절음 탈락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분절음이 탈락되려면 성분통어의 개념에 입각한 약위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b.)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Fudge(1987:360)도 지적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좌분지적 음절구조는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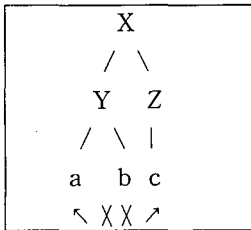
앞에서 검토한 결과로 음절구조 [18]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8]에서 On의 위치는 성분통어하는(c-commanding) 위치이고 Co는 성분통어받는(c-commanded) 위치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통사론의 이동규칙의 경우 명사구 이동이든 Wh- 이동이든 이동된 요소가 그 흔적을 성분통어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음절구조 [18]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형을 찾아낼 수 있다. 이에 따라 On의 자리는 이동된 요소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고 Co의 자리는 분절음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23] 두 음절들 간의 분절음 이동 가능성



여기서 σ_1 의 Co인 C2가 σ_2 의 On인 C3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것은 C2가 성분통어되는 위치이고 C3가 성분통어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C2가 C3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C3의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한다. Co에서 On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23]에서 C1이 비어 있을 경우 C2가 C3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것처럼 C1으로도 이동해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이 경우에 C2가 C1으로도 이동해 가지 못한다. 이 사실을 토대로 음절구조에 있어서 Durand (1990)가 언급한 구조적 계층화뿐만 아니라 분절음의 순서관계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느 분절음이 음절구조(또는 음절구조의 연쇄체) 속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절대로 다른 분절음을 뛰어 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절음 이동에 관한 제약 [24]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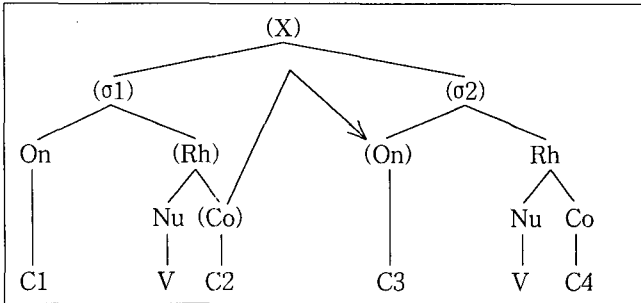
[24] 분절음 이동 제약



이것은 어떤 요소가 바로 인접한 요소를 넘어갈 수 없다는 제약이다. [24]에서 b가 이동하더라도 a를 넘어갈 수 없으며 또한 c를 넘어갈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b가 이동한 결과는 항상 이동 전과 똑 같이 abc를 산출해 내야지 bac나 acb의 배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4]의 제약에 의하면 [23]에서 C2가 이동할 수 있는 자리는 비어 있는 C3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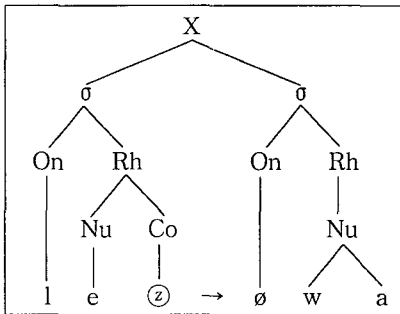
그러면 [23]에서 C2가 σ_2 의 On자리로 어떻게 이동해 갈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운율계층 이론을 받아들여 음절(σ) 위에 음보(Σ), 그 위에 음운단어, 그 위에 접어그룹, 그 위에 음운구, 그 위에 억양구, 그 위에 음운발화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앞에 제시된 도식 [23]에서도 두 음절 σ_1 과 σ_2 가 그 상위 계층에서는 어떤 운율단위로써 연결되어 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점을 고려해서 [23]을 도식 [25]와 같이 가시화 할 수 있다.

[25] 음절들 간의 분절음 이동



[25]에서는 C2는 C2를 직접 관할하는 상위 마디로 차례로 올라간다. 즉 Co에서 Rh로, 다시 σ_1 로 올라가고 여기서 σ_1 의 On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σ_1 보다 상위 운을 단위인 X로 올라가서 여기서 σ_2 로 가고 σ_2 에서는 Rh로 가지 않고 σ_2 의 On으로 내려간다. 결과적으로는 σ_1 의 Co에서 σ_2 의 On으로 직접 이동해 간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25]에서 C2가 비어 있을 때 C2가 σ_1 의 C2 자리로 이동해 가지는 않는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성분통어의 자리인 σ_2 의 On자리에 있는 C3가 성분통어를 받는 자리인 σ_1 의 C2로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분통어 관계를 좀더 확고히 하기 위해, 이 이론을 Durand(1986)가 제시한 분절음의 재음절화 규칙과 연관시켜 연습현상을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6] 분절음의 재음절화



4.2. 분절음의 의존 관계와 연습

통사적 정보가 음운규칙에 제공될 때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직접 제공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로는 Kaisse(1985)가 있고, 간접적으로 제공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로는 Selkirk(1980), Nespor & Vogel(1982) 등이 있다.

통사적 정보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어야만 해석이 가능한 음운론적 현상으로

<연성> (sandhi)을 들 수 있다. 연성은 문장 안의 단어가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어두음이나 어말음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어에서는 이것을 <연음>이라고 한다. 즉, 어미의 묵음자와 다음 단어의 어두 모음이 결합해서 발음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Kaisse(1985)의 이론을 받아들여, 그것을 연음현상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울격음운론과 통사론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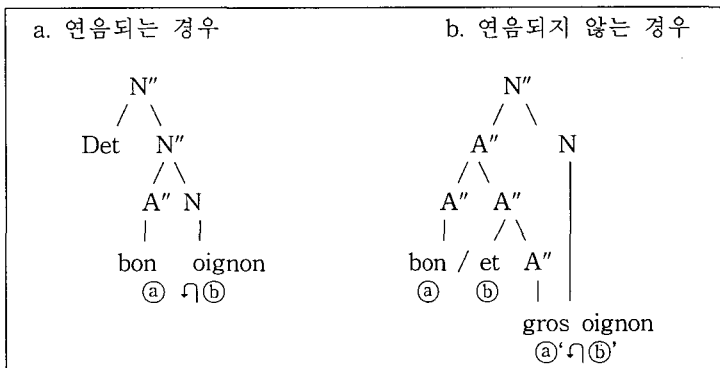
Kaisse는 통사적 정보와 관련된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분통어 조건(C-command condition)과 가장자리 조건(edge condition)이 그것이다.⁸⁾ 우리는 연음현상을 이들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27]의 (a.)와 (b.)에 공통된 bon을 살펴보면 (a.)에서는 연음이 일어나지만 (b.)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현상에 대해, [27]에 제시된 예들 간에 통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이한 연음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7] 연음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 | |
|---------------------------|
| a. bon ~ oignon |
| b. bon / et gros ~ oignon |

[27]의 (a.) bon ~ oignon에 나타나는 연음현상은 도식 [28]의 (a)에 제시된 것처럼 ㉠가 ㉡를 지배하므로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 [27]의 (b) bon/et에 연음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도식 [28]의 (b)에 제시된 것처럼 ㉢가 ㉡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gros ~ oignon 사이에서는 ㉣가 ㉡를 지배하므로 끝 자음이 연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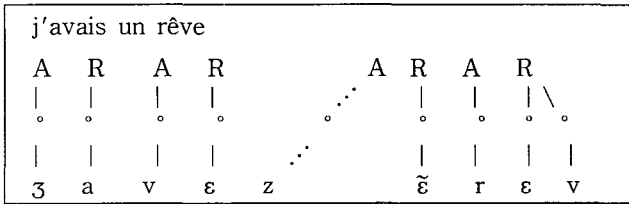
[28] 통사적 구성요소의 지배관계에 따르는 연음현상



8) 성분통어 조건: 단어의 하나는 다른 하나를 반드시 성분통어해야 한다.
가장자리 조건: 연성의 작은 그들 구성요소의 가장자리에 놓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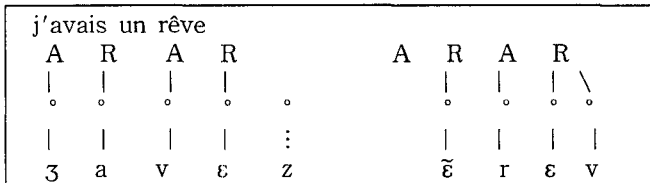
이제 구성성분의 지배관계이론을 좀더 확고히 하기 위해, 앞에 제시했던 예문 [4]에 나타나는 음절화 과정을 여기에 맞춰 가시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먼저 Clements et Keyser(1983)는 여기서 나타나는 연음현상을 도식 [29]와 같이 재음절화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29] 분절음의 지배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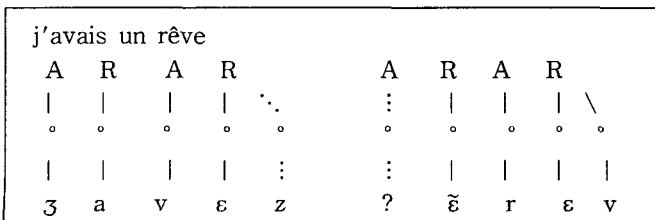
그런데 이런 처리방법은 연쇄되지 않는 경우, 어휘 형태로 떠있는 자음이 재음절화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래서 Clements et Keyser는 '떠있는 자립분절음 형태'를 받아들여 [14]에 제시했던 것처럼 자음을 모음과 분리시켰다. 도식 [14]를 재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30] 떠있는 자립분절음



도식 [30]에서처럼 묶음 장치에 음성적 조건을 제시하여 연음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앞에서 제시했던 도식 [4]의 두 그래프에 나타난 음성자료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즉, 음성실험을 통해 발음 연쇄를 막아주는 성문폐쇄음의 출현을 표기하여, 연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가시화 하면 도식 [31]과 같다.

[31] 연음현상에 대한 절충적인 해결책



여기서 성문폐쇄음 [ʔ]의 삽입은 음절의 일반적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표기는 음성 연쇄에서 화자에 따라 연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운 규칙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어 연음현상은 화자의 발화 의도, 문맥 의미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음성학적 또는 음운론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통사적, 의미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연음현상을 보다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을 수용하여 의존음운이론을 받아들였다. 최근 음운론 분야에서 다양한 음성학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음운이론을 확립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과정에서 간단한 예들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 단순한 음성자료들로는 음운규칙들을 명확하게 검증할 수는 없었다.

음운현상을 분석할 때, 음운규칙 중심의 음운론에서 음운원리 중심의 음운론으로의 방향 전환을 꾀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재음절화 모형을 제시하면서 음절 구조 내에서 분절음 이동과 지배원리로 기존의 음운현상을 설명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 의존이론의 토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음성자료들을 분석,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명관. 1992. *불어의 음절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김명관. 1992. "음절화 과정에서 양음절성에 대한 연구." *언어학의 제문제*. 70-103. 허문강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김명관. 1993. "불어 어두자음 배열제약." *어학* 제 20집. 113-133.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김종훈. 1990. *음절음운론*. 한신문화사.
 오정란. 1993. *현대 국어음운론*. 형설출판사.
 이기석. 1993. *음절구조와 음운원리*. 한신문화사.
 이정원. 1997. "불어의 음절구조 분석." *음성과학* 제 1권, 113-135.
 Angoujard, J.-P. 1997. *Théorie de la syllabe - Rythme et qualité*. CNRS Editions
 Chomsky, N. & M. Halle. 1968. *Principes de phonologie générative*. tr. N. Ruwer. Seuil.
 Clements, G. N. & S. J. Keyser. 1983. *CV Phonology*. MIT Press. Cambridge.
 Dell, F. 1973. *Les règles et les sons*. Hermann. Paris.
 Ducrot, O. et J.-M. Schaeffer. 1995. *Nouveau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s sciences du langage*. Editions du Seuil.
 Durand, J. 1986. "French Liaison, Floating Segments and Other Matters in a

- Dependency Framework." In *Dependency and Non-Linear Phonology*. Edited by J. Durand, 161-201. Croom Helm, London.
- Durand, J. 1990. "Review of principles of dependency phonology", *Lingua* 80, 94-101.
- Encrevé, E. 1983. "La liaison sans enchaînement."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46. 39-66.
- Fudge, E. C. 1987. "Branching structure within the syllable." *Journal of Linguistics* 23. 359-377.
- Gaatone, D. 1979. "Liaison et structure syllabique en français." *Le français Moderne* 48. 312-334.
- Goldsmith, J. 1976. *Autosegmental Phonology*. thèse Ph. D., MIT.
- Goldsmith, J. 1990. *Autosegmental & Metrical Phonology*. Oxford.
- Guilbert, L. et al. 1971. *Grand Larousse de la langue française*. Librairie Larousse.
- Kaisse, E. M. 1985. *Connected Speech: The Interaction of Syntax and Phonology*. Academic Press.
- Kaye, J., J. Lowndstamm et J. R. Vergnaud. 1985. "The interan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a theory of charm and government." *Phonology Yearbook*, 2. 305-328.
- Kiparsky, P. 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Dordrecht.
- Klein, M. 1993. "La syllabe comme interface de la production et de la reception phoniques." In *De natura sonorum - Essais de phonologie*, Edited by B. Laks and M. Plénat, 101-141. Presses Universitaires de Vincennes, Saint-Denis.
- Levin, J. 1987. "Constraints on Syllabification in French: Eliminating Truncation Rules." In *Phonology and Morphology 10*, Hanshin, Seoul. 11-31.
- Malécot, A. 1975. "French Liason as a Function of Grammatical, Phonetic and Paralinguistic Variables." *Phonetica* 32: 161-179.
- Martinet, A. & H. Walter. 1973. *Dictionnaire de la prononciation française dans son usage réel*. Expansion. Paris.
- Nesper, M. & I. Vogel. 1982. *Prosodic Phonology*. Foris.
- Noske, R. 1982. "Syllabification and syllable changing rules in French." In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II*. 257-310.
- Reinhart, T. 1976. *The Syntactic Domain of Anaphora*. Doctoral Dissertation. MIT.
- Saussure, F. D.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 D. Mauro (ed.). Payot.
- Schane, S. A. 1968. *French phonology and morphology*. MIT Press. Cambridge.
- Selkirk, E. O. 1982. "The syllable." In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II*. 337-383.
- Spa, J. J. 1987. "Les deux schèmes syllabiques du français." *Linguisticoe Investigationes XI:1*. 197-223.

접수일자 : '98. 9. 30.

게재결정 : '98. 11. 15.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우: 651-756)
Tel : (0652) 270-3190 (O), 222-6832 (H)
Fax : (0652) 270-3296
e-mail: myungwan@shinbiro.com